

제5장 — 달빛의 그림자

반지는 여전히 차가웠다.

새벽의 기록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데도.

왕궁의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당신은 계속 손바닥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굳은살 사이에 남은 미세한 균열이 조금씩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통증은 거의 없었지만, 감각은 분명히 살아 있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감각이 지나치게 오래 남는다. 뒷골목에서는 감각이 오래 남기 전에, 다음 날이 와서 덮어버리곤 했는데.

기록관은 바다 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

벽에 걸린 수정등은 흔들리지 않았다. 빛은 고요했고, 공기는 마르지도 젖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 공간에서는 파도 대신 정리된 질서가 흐른다.

기록, 보존, 분류.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남는 장소.

당신은 반지를 내려놓았다.

보랏빛 문양이 빛을 받아 아주 미묘하게 반사되었다.

왕국의 금속 장신구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매끄러운 반사. 손때가 묻지 않은 물건이 아니라, 손때를 거부하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기록관 담당자가 반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확실하네.”

그는 당신을 보지 않았다.

대신 반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최근 들어 이런 방식이 늘었어.”

“얼마나?”

“기록된 것만 열셋.”

잠간의 침묵.

“기록되지 않은 건… 그보다 많겠지.”

열셋.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숫자.

하지만 이 왕국에서는 그 숫자가 충분히 경고였다.

기록관 담당자는 천으로 반지를 감싸 봉인하며 낮게 덧 붙였다.

“달의 왕국이 직접 손을 넣기 시작했어.”

그 말에는 불필요한 수식이 없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당신은 기록관을 나서며 처음으로,

이 왕궁의 조용함이 평소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다는 걸 느꼈다.

회랑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수로가 내려다보였다. 물안개가 얇게 깔린 수면 위에, 인어 하나가 얼굴만 내밀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물 위로 드러난 피부는 은은하게 빛났고, 젖은 머리카락은 수면에 닿은 채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그녀는 당신을 보자,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인사에 가까운 동작이었다.

당신은 잠시 멈춰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기이할 정도였다.

며칠 전, 당신의 손은 사람의 숨을 끊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 간극이 이상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이미 이 왕국의 일부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서 뭐 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기사단 동료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다.

“잠이 안 와서.”

“그렇지. 여기 바다 소리… 사람 잠 못 들게 만드는 데 특화된 것 같지 않아?”

가볍게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당신은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이곳의 소리는 사람을 재우기보다, 깨어 있게 만든다.

“그래도 말이야.”

그가 수로 쪽을 힐끔 보며 덧붙였다.

“이상하게… 나쁘진 않잖아. 돌아올 곳이 있다는 느낌.”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장이 오래 남았다.

돌아올 곳.

그 말이, 요즘 들어 유난히 무겁다.

며칠 후, 두 번째 정보가 올라왔다.

이번에는 항구가 아니라, 외곽 교역 도시였다.

평범한 상단, 평범한 성장. 그러나 숫자가 지나치게 깔끔했고, 흐름이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매끄럽다는 건, 누군가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리네는 당신을 다시 불렀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잠깐 말을 고르듯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다. 결정을 전하기 전의 리네가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린 후의 리네였다.

“이번에도… 네가 가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시선을 들어 당신을 보았다.

“혼자는 아니야. 두 명 더 붙일게.”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적.

그리고 리네가 말했다.

“무사히 돌아와.”

그 말은 여전히 명령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깊게 파고들었다.

당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더 이 왕국에 묶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칼로 묶인 것이 아니라, 말로 묶이고 있다.

출발 전날 밤, 기사단 숙소는 조용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사람, 무기를 반복해서 닦는 사람, 아무 일도 없는 척 잡담을 이어가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사실을 피하고 있었다.

내일,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칼을 닦고 있었다. 천으로 칼날을 따라 천천히 훑으며, 손의 감각을 확인하듯 움직였다.

예전처럼 세게 힘을 주지 않아도, 칼은 안정적으로 손 안에 있었다. 잡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었다. 오래 버티기 위한 방식.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남겨두는 방식.

자신의 침대 옆에 걸터 앉은 동료가 말했다.

“너, 이상하게 그대로야.”

“뭐가?”

“첫 임무 다녀온 사람들은 보통... 좀 변하거든. 안좋은 쪽으로”

당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난 잘 모르겠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무섭거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는 작게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난 아직도... 가끔 얼굴이 떠올라.”

당신은 그 말을 듣고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에게도 얼굴이 남아 있다. 다만, 그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개별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뒷골목에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시선들. 그 시선들 위에 지금의 임무가 덧씌워지고 있을 뿐이다.

그날 밤, 당신은 바다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전에는 이 소리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이 소리가 없으면 더 불안해진다.

그 사실이, 조금 무서웠다.

며칠 뒤, 왕궁에 올라온 보고는 더 이상 애매하지 않았다.

외교 문서의 한 구석,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위치에 삽입된 문장 하나. 기록관이 분석한 결과, 그것은 달의 왕국이 사용하는 암호 구조와 완벽히 일치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숨고 있지 않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전달받은 날, 리네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가에 서 있었다.

당신은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수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인어들이 숨을 고르고 있었고,
어인들은 평소처럼 물자를 나르고 있었으며,
항구는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리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녀는 당신을 보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장면이,
이 고요함이,
이 왕궁의 일상이
곧 끝나기 직전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쪽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